# “달구벌 징크스 깨고, 상위스플릿 가자”

## 광주FC, 21일 원정 대구戰

### “두번 패배는 보약” 설욕전 기회로
### 창단 첫 코리아컵 4강 자신감 무장
### ‘세드가’ 봉쇄 관건…전략으로 승부

광주FC 변준수가 지난 5월11일 대구원정에서 골을 터뜨린 후 동료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광주FC 제공〉

프로축구 광주FC가 오는 21일 오후 7시 DGB대구은행파크에서 열리는 하나은행 K리그1 2024 24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대구FC를 상대로 설욕과 반등을 동시에 노린다.

올 시즌 두 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패배한 광주는 이번 원정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해 분위기 반전을 이뤄내겠다는 각오다.

주축 선수들의 부상 이탈에도 불구하고 끈끈한 조직력과 젊은 패기로 순위 싸움을 이어 나가고 있는 광주는 대구 원정에서의 승리를 통해 중위권 도약을 꿈꾸고 있다.

한편, 대구는 최근 5경기에서 3무 2패로 주춤하며 10위에 머물러 있지만, 홈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 온 만큼 쉽지 않은 승부가 예상된다.

특히 K리그 최고의 외국인 선수 중 하나인 세징야를 중심으로 한 공격력은 여전히 위협적이다. 하지만 광주는 지난 두 번의 패배를 통해 대구의 전략을 분석하고 약점을 파고들 준비를 마쳤다.

광주의 키플레이어는 아사니다.

지난 17일 코리아컵에서 오랜만에 선발 출전하며 돌아온 아사니는 과감한 공격과 적극적인 수비가 담으로 나무랄 데 없는 경기력을 보여줬다. 엄지성이 해외 이적을 하면서 남긴 7번을 이번 경기부터 넘겨받게 된 아사니는 리그에서는 보다 날카롭고 과감하게 임하겠다는 각오다.

또, 코리아컵에서 쾌조의 컨디션을 자랑한 신창무가 주전 조에 속하는 최경록, 이희균과 함께 대구 골문을 정조준한다.

팀 사상 첫 코리아컵 4강에 오른 이정효 감독은 “안혁주, 정지훈 등 어린 선수들의 적재적소 투입을 통해 팀으로 득점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며 변화무쌍한 전술 구사를 예고했다.

광주 수비진들은 대구의 공격 핵심인 세징야와 에드가를 일컫는 ‘세드가’를 봉쇄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강력한 압박과 협력 수비를 통해 활동 반경을 제한하고 빠른 공수 전환을 통해 측면 수비 뒷공간을 공략함으로써 대구전 무실점 승리를 이끌겠다는 각오다.

올 시즌 광주FC는 강등권 팀에게 단 1승만 거두며 시즌을 어렵게 끌어가고 있다. 3라운드 로빈이 시작되면서 순위 경쟁 팀과의 대결은 더 이상 패해서는 안 될 승점 6점 이상의 가치를 지니게 됐다.

코리아컵 8강전에서 극적인 승리로 사기가 한껏 오른 광주FC가 이번 달빛 더비에서도 그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사뭇 기대된다.

/박희중 기자

KIA 최형우가 지난 17일 홈에서 열린 삼성과의 경기에서 3회말 ‘KIA 홈런존’으로 홈런을 날린 뒤 환하게 웃으며 그라운드를 돌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 최형우, 2024 ‘기아 홈런존’ 첫 주인공

## 불혹의 노장 투혼 “기록하고 기억하라”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해결사’ 최형우가 2024시즌 기아 홈런존의 첫 주인공이 됐다.

최형우는 지난 17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기에서 3회말 2사 2루 상황에서 상대 선발투수 레예스의 공을 받아쳐 ‘기아 홈런존’을 직접 때리는 투런포를 터트렸다.

KIA는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개장 첫 해(2014년)부터 우측 잔디석에 ‘기아 홈런존’을 운영하고 있다. 바운드 없이 홈런존 차량 및 구조물을 맞히는 선수에게 전시 차량을 증정한다.

최형우의 타구가 기아 홈런존에 전시 중인 ‘EV3’ 차량 전시 구조물에 맞음에 따라, 기아는 신형 전기차인 ‘EV3’를 최형우에게 증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까지 기아 홈런존으로 타구를 날려 차량을 받은 선수는 김재환(2014년 5월27일 K5), 최희섭(2015년 4월9일 올 뉴 쏘렌토), 오재일(2017년 10월25일 스팅어), 프레스턴 터커(2020년 5월17일 쏘렌토), 김현수(2020년 8월4일 쏘렌토), 나성범(2021년 9월12일 K5, 2022년 8월16일 더 뉴 셀토스), 소크라테스(2023년 6월8일 The 2024 Niro) 등 총 7명이다.

/주홍철 기자

손흥민과 황희찬 /연합뉴스 자료사진

# 손흥민 “난 네 곁에 있어”
# 인종차별 당한 황희찬 위로

한국 축구대표팀의 ‘캡틴’ 손흥민(토트넘)이 연습경기 중 인종차별을 당한 황희찬(울버햄프턴)을 위해 목소리를 냈다.

손흥민은 지난 17일 황희찬의 소셜미디어에 영문으로 “난 너의 곁에 있다”는 문구를 ‘인종차별이 설 곳은 없다’는 해시태그와 함께 댓글로 달았다.

황희찬이 최근 당한 인종차별과 관련해 자신의 심정을 토로한 글에 대한 댓글이었다.

울버햄프턴 소속의 황희찬은 16일 이탈리아 구단 코모 1907과의 프리시즌 친선경기 중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들었다.

이에 격분한 팀 동료 다니엘 포덴세가 인종차별 발언을 한 선수를 향해 주먹을 날린 뒤 퇴장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울버햄프턴은 이 사건과 관련해 유럽축구연맹(UEFA)에 항의하기로 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가해자’의 소속 구단인 코모는 외려 울버햄프턴 선수들이 과민반응하고 있다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여 팬들의 화를 돋우고 있다.

황희찬은 소셜 미디어에 “인종차별은 스포츠는 물론 모든 삶에서 참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응원을 보내준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인종차별은 발붙일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지난 14일 경남 고성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2024 대한항공배 전국대학배구 고성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광주여대 선수단이 시상식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여대 제공〉

# 광주여대 배구, 대한항공배 고성대회 준우승

## 단양대회 이어 2개대회 연속 준우승…김나현 ‘공격상’·배은미 ‘리베로상’

광주여대 배구부가 2024 대한항공배 전국대학배구 고성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광주여대는 지난 14일 경남 고성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여자대학부 결승전에서 단국대에 풀세트 접전 끝에 2대3(20-25 25-21 25-10 24-26 4-15)으로 아쉽게 패하며 창단 첫 우승을 다음 기회로 미뤘다.

6개 팀이 참가해 조별리그로 치러진 이번 대회에서 B조 광주여대는 호남대를 3대0(25-10 25-18 25-18)으로 꺾고 첫승을 올렸으나 우석대에 1대3(21-25 25-18 25-27 26-28)으로 패해 1승 1패를 기록, 조2위로 준결승에 진출했다.

광주여대는 A조 1위 경일대를 상대로 3대0(25-20 25-22 25-21)으로 완파하며 결승에 올랐다.

단국대와의 결승전에서 세트 스코어 2대1로 앞서가던 광주여대는 4세트 24-22 매치포인트에서 단 1점을 뽑지 못하고 내리 4실점하며 분위기를 내줬다.

지난달 28일 열린 2024 대한항공배 전국대학배구 단양대회 결승에서 우석대에 패해 준우승에 머물렀던 광주여대 2개 대회 연속 준우승을 기록했다.

팀을 2회 연속 준우승으로 이끈 최성우 감독은 우수지도자상을 수상했고, 김나현(스포츠학과 2학년)이 공격상, 배은미(스포츠학과 2학년)가 리베로상을 받았다.

지난해 8월 창단한 광주여대 배구부는 1, 2학년으로 구성된 새내기 팀이지만 파이팅 넘치는 탄탄한 조직력으로 올해 첫 출전한 2024 KUSF 대학배구 U-리그 정규리그 3위를 차지하는 돌풍의 주역으로 떠올랐다.

광주여대는 오는 9월7일 천안 단국대체육관에서 정규리그 2위팀 단국대와 결승진출을 위한 플레이오프를 치른다.

최성우 감독은 “학업과 힘든 훈련을 이겨낸 선수들의 투혼이 좋은 결실을 맺은 것 같다”며 “학교 임직원들과 학우들의 든든한 지원과 응원을 원동력으로 매 경기 최선을 다해 광주여대 명예를 드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보배·최미선·안산 등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을 배출하며 여자 양궁 사관학교로 명성을 드높인 광주여대는 지난해 글로벌 체육 인재 양성을 위해 스포츠학과를 신설하고 배구부와 농구부를 운영 중이다.

/박희중 기자

## 김주형, 브리티시오픈 앞두고 우즈와 연습 라운드

김주형이 지난 17일 스코틀랜드 트룬의 로열 트룬 골프클럽에서 열린 브리티시 오픈 골프 챔피언십 연습 라운드를 마치고 타이거 우즈와 악수하고 있다. /AP=연합뉴스

김주형이 제152회 브리티시오픈 골프대회 개막을 앞두고 타이거 우즈(미국)와 함께 연습 라운드를 진행했다.

김주형은 18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우즈와 함께 연습 라운드를 하는 사진을 올렸다. 올해 마지막 메이저대회인 디오픈 대회 장소는 영국 스코틀랜드 사우스에어셔의 로열 트룬 골프클럽이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김주형과 우즈의 연습 라운드 영상을 소개하며 ‘우즈와 김주형이 서로 즐겁게 웃으며 제152회 디오픈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1975년생 우즈와 2002년생 김주형은 나이 차이가 27살이나 나지만 투어에서 가깝게 지내는 사이로 알려졌다.

2022년에는 타이거 우즈 재단이 여는 히어로 월드 챔피언십에 김주형이 초대받았고 2023년에는 마스터스를 앞두고도 우즈와 김주형이 함께 연습 라운드를 진행한 바 있다. /연합뉴스

# 뮌헨 vs 토트넘 하프타임쇼에 ‘뉴진스’ 뜬다

손흥민과 김민재가 대결하는 자리에 인기 아이돌 그룹 ‘뉴진스’가 뜬다.

쿠팡플레이는 ‘2024 쿠팡플레이 시리즈’ 프로축구 바이에른 뮌헨과 토트넘 홋스퍼의 경기 하프타임 쇼를 장식할 팀으로 뉴진스를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뉴진스는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으로, 발매하는 곡마다 전 세계 팬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뉴진스 측은 “뮌헨 대 토트넘이라는 꿈의 매치가 펼쳐지는 하프타임 쇼를 꾸미게 되어 설렌다”면서 “경기장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달굴 무대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뮌헨과 토트넘의 쿠팡플레이 시리즈 2차전은 8월3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킥오프한다.

앞서 쿠팡플레이는 팀 K리그와 토트넘이 대결하는 1차전 하프타임 쇼를 장식할 팀으로는 트와이스를 선정했다. /연합뉴스